



## 가치, 교과목, 교수인력의 빈곤 속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방안 모색

모델 교육과정 수립과 협업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정은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 Toward a New Model of Korean Journalism Education

Focusing on Journalism Curriculum Enrichment and Journalistic Collaboration Improvement

**Jihyang Choi\***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

**EunRyung Chong\*\***

Director of SNUFactCheck Cent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Hae Jung Oh\*\*\***

Doctoral Student,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 Reporter,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With high demands to redefine the goals and domain of journalism education amid the dramatic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the present study seeks ways to bring disruptive innovation to undergraduate-level journalism education. Considering that journalism education integrates theory and professional skills, we conducted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0 experts who have a broad understanding of both academia and the field of professional journalism. Results show that Korean journalism education is facing various difficulties, including the lack of core value education, insufficient journalism courses stemming from a department-store-style curriculum, and shortage of faculty who has expertise in teaching professional skills.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journalism curriculum should be designed to increase students' domain knowledge about journalism. The courses offered should strengthen students' abilities to produce original content,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professional journalistic ethics, and enhance their knowledge of data science and the user-based media environment. In addition, course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civil rights, and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s part of a liberal arts curriculum. As realistic solutions, a publication of an anthology of good news reports, facilitation of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academia and

\* choi20@ewha.ac.kr, first author

\*\* ryung0305@snu.ac.kr, corresponding author

\*\*\* rosy217@naver.com

professional journalism, and development of a model journalism curriculum were suggested.

**Keywords:**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curriculum, citizenship education, in-depth interview

# 1. 문제제기

한국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은 실패했는가? 그 근거로 저널리즘 교육이 관련 업계의 전문 인력 배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 자주 언급되곤 한다(배정근, 2013). 한국언론재단이 2017년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국의 기자 1,667명 중 신문방송 계열 전공자의 비율은 1위인 어문·인문 계열의 28.1%보다 적은 22.9%였다. 신문방송 계열을 전공한 기자의 비율은 그로부터 12년 전 이재경(2005a, 106쪽)이 “한국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은 실패했다”고 선언한 당시의 수치(18.5%)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이는 최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 대학 저널리즘 교육의 초창기였던 1973년 강현두와 윤희중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저조한 관련 업계 취업률이 한국 매스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당면한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그 원인으로 두 연구자는 이론에 우위를 두는 대학 교육과 언론산업계의 대학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강현두·윤희중, 1973).

하지만 졸업생의 언론사 취업률을 교육 효과의 절대적인 지표로 삼는 등, 저널리즘 교육이 저널리즘 산업의 ‘중속변수’화하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송현주, 2019). 저널리즘 전공에 대한 선호도나 졸업생 취업률 등은 연계 산업의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현재 언론 산업의 위축은 자연히 교육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위주의 접근법을 고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교육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Mensing, 2010)은 곱씹어볼 부분이다.

저널리즘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 교육의 목표와 영역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춰 교과과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내·외 학계에서 끊이지 않고 대두됐다(예: 이민규, 2013; 최민재·김성해·박진우·최용준, 2013; Carey, 2000; Deuze, 2006; Reese & Cohen, 2000). 하지만 저널리즘 교육은 여전히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김선호·오세욱, 2017; Mensing, 2010). 언론신뢰도 하락과 함께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에 있어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냉소가 팽배하고, 언론 산업이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저널리즘 교육이 “현상유지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이 아니라 ‘과격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할 때며, 저널리즘 커리큘럼은 “이미 확립된 내용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김선호·오세욱, 2017, 75-76쪽)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를 수 없는 거창한 목표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저널리즘 교육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 학계와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저널리즘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생각거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1) 대학 저널리즘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2) 이상적인 저널리즘 교과과정 구성에 대해 고민한 후, 3) 저널리즘 교육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저널리즘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 교육이 어떻게 그 목적을 재정립하고 저널리즘만의 영역지식(domain knowledge)을 정의,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으려 한다. 궁극적으로는 저널리즘 교육이 산업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저널리즘 업계는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선행변수로 기능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계와 언론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본고는 학부 수준의 저널리즘 교육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명확히 해 둔다. 저널리즘 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저널리즘스쿨을 포함한 대학원 교육, 현업기자 재교육, 시민 교육 등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저널리즘 교육의 대부분이 학부 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언론학이라는 용어 대신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이다. 신문학을 모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언론학은 광고·홍보,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을 망라하는 전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2. 문헌연구

### 1) 저널리즘 교육 영역의 축소

우리나라에서 저널리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이라는 지적이다. 초기 저널리즘 교육은 신문기자 배출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1929년 정규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이화여전 문과 교과과정에서 <신문학(Journalism)>을 개설해 가르친 것이나 1947년 문을 연 사설 저널리즘 교육 기관인 조선신문학원에서 이뤄진 이론 및 실무 교육은 모두 기자 양성을 위한 것이었다(김영희, 2012). 1954년 홍익대학교 신문학과를 시작으로 대학에 정식 학과가 생겨나고 저널리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해당 학과의 팽창과 함께 창설의 근간이 되었던 저널리즘 교육의 정체성은 도리어 혼란을 겪는다. 이강수(1973)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관련 학과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무작정 추가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Media별 전공

의 미분화로 인해서 각 학년마다 신문, 잡지, Radio, TV, 사진, 광고 등의 기초과목에서 기술적 과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모순성”(이강수, 1973, 82쪽) 때문에 하나의 전공분야도 완전히 익힐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즉, 관련 학과가 초기부터 이론과 실무 교육이 뒤섞이고 신문, 방송, 광고,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백화점식 커리큘럼’(이재경, 2005b)을 갖추게 되면서 저널리즘 교육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악화를 거듭해 최근에는 관련 학과에서 저널리즘 영역이 축소될 뿐 아니라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송현주, 2019). 학과가 다양한 하위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성을 땀에 따라 신문방송학, 언론학, 언론정보학 등으로 불리던 관련학과의 명칭은 최근 들어 ‘커뮤니케이션학’ 또는 ‘미디어학’ 등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관련 학과명에 ‘언론’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곳조차 소수에 불과하다. 배정근(2013)이 서울 시내 10개 대학의 관련 학과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저널리즘만을 별도의 전공 학과로 삼은 곳은 없었다. 게다가 광고, 방송 등 이질적인 전공은 분리한 후 남는 세부 영역과 저널리즘을 모아 언론관련 전공으로 구분하는 현상도 발견됐다.

실제로 김선호와 오세욱(2017)이 저널리즘 과목을 가르치는 전국 언론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2016년 2학기와 2017년 1학기 개설과목을 조사한 결과, 학부에서 열린 총 1,147개 과목 중 저널리즘 과목은 전체의 11%(저널리즘 일반 9.3%, 디지털저널리즘 1.7%)인 125개 과목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과목이 개설된 세부전공은 광고/PR 분야로 247개 과목(21.6%)이었고 방송/영화/영상 관련 과목은 광고/PR보다 딱 한 과목 적은 246개 과목(21.6%)이었다. 저널리즘 과목 중에서도 저널리즘 일반 과목은 106개 과목(9.3%)에 불과해,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순수 저널리즘 관련 과목의 비율은 광고/PR이나 방송/영화/영상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즉 여러 전공의 혼재 속에서 당초 해당 학과의 주축이었던 저널리즘은 그저 여러 영역 중 하나(one of them)로 취급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른 영역과 비교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리즘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다. 전공학점을 여러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채우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고(이재경, 2005b), 저널리즘 전공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나 채용할 수 있는 교원의 수에도 한계가 생기면서, 저널리즘에 특화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서술한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현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현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연구문제 1: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2)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구성

저널리즘 교육자가 일상적으로 당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같은 학과 안에도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저널리즘을 제외한 타 세부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과 저널리즘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며 입학한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저널리즘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저널리즘 교양과 실무교육의 대상과 그 경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데, 모든 전공생을 대상으로는 저널리즘에 특화된 교양 프로그램을, 저널리즘에 집중하고자 하는 전공생에게는 심화된 실무 및 이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 (1) 저널리즘 역할 재정립과 저널리즘 교양교육

현 상황의 어려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양한 세부전공과의 접점 속에서 저널리즘 교육의 영역을 넓힐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은 저널리즘의 축소를 개탄할 때가 아니라 혁신적인 교과과정을 마련해 어떻게 저널리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송현주, 2019)라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공교양 교육으로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직업교육으로써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저널리즘의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몰하는 것이 답을 찾는 지름길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널리즘 교육의 재정립과 확장을 고민하는데 있어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은 미디어 혁신이나 기술이 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democracy)’로, 민주주의 ‘시민성 교육’이 저널리즘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캐리(Carey, 2000)의 말처럼 저널리즘의 개혁은 ‘민주주의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an alignment with democracy)’이라는 얘기다. 로젠(Rosen, 2006)은 캐리가 펼친 일련의 주장에 해석을 더해 서술하며 저널리즘과 민주주의는 같은 것을 뜻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로, 저널리즘은 도리어 미디어와 결별(uncoupling journalism from media)하고 민주주의와 다시 연결(recoupling journalism to democracy)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멘싱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널리즘이 산업위주(industry-centered model)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공동체위주의 모델(community-centered model)’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ensing, 2010). 좀 더 상세히 서술하자면 산업위주의 현 저널리즘 교육 모델은 △기자의 탈전문직화 속에서도 여전히 보도 전문가에,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 교육에, △비판적인 질문을 잘 하는 법보다는 기성 언론사에서 인턴 등의 경험 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현재 저널리즘 교육의 틀은 기자가 게이트키퍼로서 정보 전달 체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시대에 정립됐다(Carey, 2000). 하지만 기자가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는 종식됐고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취재, 보도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널리즘 교육은 여전히 정보수집, 빠른 전달을 주된 목표로 상정한 채 이뤄지고 있다. 저널리즘 교육이 기성 언론계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배출하는가에만 계속 초점을 맞춘다면 저널리즘 업계의 비람직하지 않은 현 상황(status quo)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낳는다는 것이다. 이에 멘싱은 저널리즘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임을 되새겨, △공동체와 함께, △일방적이 아닌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저널리즘을 실행하도록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세기 들어 미 카네기멜론 재단과 나이트재단이 ‘카네기-나이트 선도과제(Carnegie-Knight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저널리즘 교육 및 교과과정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차세대에게 지식 전달을 주도할 저널리즘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장차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Donbach, 2008). 세계저널리즘교육총회(World Journalism Education Congress)와 유럽저널리즘교육회의의 ‘타투선언(Tartu Declaration)’, 유네스코의 ‘저널리즘 교육 세계 표준안’ 발표도 모두 민주주의에서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최민재 등, 2013). 나이트재단이 미래의 저널리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실시한 인터뷰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저널리즘은 “식견 있고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Lynch, 2015, p. 4).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도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긴밀한 관계는 변치 않는 핵심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민주주의 사회질서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저널리즘을 복원하여, 환경감시자로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공동체 규범의 수호자로서, 공동체의 발전 촉진자로서 언론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최민재 등, 2013, 2-3 쪽)은 중요한 문제다.

종합하자면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하고 이 같은 좋은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저널리즘 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이다. 관련 교육은 세부 전공에 관계 없이 모든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즘 교양의 형태를 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저널리즘이 역동적인만큼 민주주의도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의 여러 모델 중 저널리즘은 어떤 모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저널리즘과 시민성의 연결고리를 확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은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김선호·오세욱, 2017).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접근법 중 하나가 ‘뉴스리터러시(news literacy)’ 교육이다. 뉴스리터러시는 “뉴스 미디어에 담긴 진실, 정보,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18쪽)로 좁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뉴스 영역에만 국한되는 역량은 아니다. 넓은 맥락에서는 개인적인 소셜미디어포스팅에서 뉴스와 방송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산, 공유, 배포, 재배포하는 모든 ‘미디어 액티브소비자’(mediaactive consumer)가 갖춰야할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오세욱, 2018). 길모어(Gillmor, 2010)는 어떤 콘텐츠를 생산, 소비하건 간에 독립성, 정확성, 투명성 등 저널리즘에서 추구하는 원칙을 따름으로써 콘텐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의견과 정보를 나누되, 그 진위와 품질을 평가할 줄 알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미디어소비자가 되기 위한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어 저널리즘 교육이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즉, 저널리즘 뿐 아니라 다양한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저널리즘 교양교육은 저급한 저널리즘과 정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저널리즘 그리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방법일 수 있다.

## (2) 저널리즘 실무교육의 중요성과 한계

저널리즘 업계를 이끌고 발전시킬 전문가 양성은 여전히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 임무다.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실무교육이 필요하지만 한국 저널리즘 교육 현실에서 실무교육은 그 양과 질 양쪽 모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소개한 김선호와 오세욱(2017)의 연구는 전국 언론 관련 학과에서 제공하는 개설과목이 강의 중심인지 또는 실습 중심인지 여부도 조사했다. 전체 1,147개 학부 과목 중 4분의 3이 넘는 870개 과목(76.2%)이 강의 중심 과목이었고 실습 중심은 95개 과목(8.3%), 강의와 실습이 혼합된 형태가 50개 과목(4.4%)으로 파악됐다. 즉 완전한 실습 또는 실습이 포함된 과목을 합해도 전체의 12.7%에 불과해 실무 과목의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저널리즘 관련 수업의 실습 비중은 두드러지게 낮았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국내 4년제 대학 58개의 저널리즘 관련 학과와 학부의 개설과목을 분석한 하중원(2017)의 연구결과 ‘방송·영상 및 뉴미디어’와 ‘광고 및 홍보’ 관련 과목의 실습 비중은 각각 40.4%, 33.9%였으나 저널리즘 관련 과목의 실습비중은 25.7%로 가장 낮았다. 그나마 제공되는 실무 과목의 질도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 출신으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에서 가르치는 제정임은 <관훈클럽>에 기고한 글(2010)에서 학부 과정에서 느낀 실무 교육에 대한 실망과 갈증이 언론인 지망생들이 전문 저널리즘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동기라고 설명한다. 남재



일과 최민재(2005)가 서울 시내 18개 대학교에서 언론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이론보다 실무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이 느꼈지만, 정작 강의 내용과 개설 강좌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이론과목보다 실무과목이 낮게 나왔다. 꽤 오래 전 실시된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상황은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과목 부족은 현 저널리즘 교육이 이론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초 저널리즘 실무 교육 위주로 운영되던 미국의 저널리즘스쿨에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박사가 교원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1960년대 소위 ‘녹색채 vs 카이스퀘어(Green eyeshade vs. chi-squares)’ 논쟁<sup>1)</sup> (Highton, 1967, 1989)이 불거졌다. 논쟁의 핵심은 저널리즘 교육이 실무위주의 직업교육과 사회과학적 접근법을 통한 현상 이론화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 예만 봐도 이론/실무의 균형은 저널리즘 교육에 있어서 오래된 고민거리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관련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미국언론학회(AEJMC)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저널리즘 교과 과정이 담아야 할 다섯 가지 교육 목표를 제시했는데, 학부 과정 커리큘럼과 관련한 목표에는 △직업 능력 향상이 가장 먼저 올라 있어 실무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AEJMC Curriculum Task Force, 1996). 그 밖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는 △미디어 분석 및 비판 능력 함양, △비전공자들에게 미디어 역할 이해시키기 등이다.

저널리즘 커리큘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또 다른 주체는 미국저널리즘교육인증협회(ACEJMC)로 저널리즘을 전공한 교수와 언론사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1945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 인증하고 있다. 평가는 9개의 기준<sup>2)</sup>에 따라 이뤄지는데 그 중 ‘커리큘럼과 지도(Curriculum and Instruction)’ 부문의 5개 평가 지표 중에는 △이론(theoretical and conceptual courses)과 실무(professional skill courses) 과목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ACEJMC, 2019). 6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현재 전 세

---

1) ‘녹색채’(green eyeshade)는 신문사 등에서 일하는 저널리즘 실무자를 상징하는 용어로 ‘카이스퀘어(chi-squares)’는 사회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를 상징한다. 녹색채는 백열등 아래서 장시간 집중해 글을 봐야 하는 이들이 시력보호를 위해 쓰던 책으로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뉴스 편집자들이 자주 이용했다.

2) 9개 기준은 △임무, 관리, 행정, △커리큘럼 및 지도, △다양성과 포괄성, △전임/비전임 교원, △학술: 연구, 창의적 전문적 활동, △학생서비스, △지원, 시설, 장비 등이다. 커리큘럼 및 지도 영역에서 위에 제시된 것 이외의 평가 지표는 △전체 졸업학생 중 저널리즘 이외의 분야에서 72학점 이상을 듣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디지털, 기술, 멀티미디어 경쟁력에 대한 직업적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지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교원-학생 간 비율이 20대1을 넘지 않는지 여부, △인턴십 등 다른 직업교육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계에서 113개의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 저널리즘 교육이 대학원 수준의 전문 저널리즘스쿨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터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저널리즘 교육의 방향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학자, 교육자, 현업 언론인 등 저널리즘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교수와 언론인들이 학회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성 행사에서 현재의 저널리즘 교육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일 뿐 아직까지 유기적이고 제도적인 협력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2006년 방송학회에서 열린 특별세션 <방송학과와 맺은 새로운 인연: 현장에서 보았던 학계, 들어와서 보는 학계>에는 방송사 출신으로 학계에 몸담고 있는 5명의 교수가 참가했는데 이들은 학계가 “대외적으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자체 개혁에는 인색하다(김용래 등, 2006, 2쪽),” “학교와 교육 현장이 너무 유리돼 있다(김용래 등, 10쪽)” 등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 학계 분위기에 대해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인이 대학 저널리즘 관련 과목의 교과과정 구성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무교육을 위해 언론사와 학계가 그나마 교류하는 예는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초빙교수 운영제도’를 꼽을 수 있다. 언론재단에서 대학에 연구개발비와 강의료, 조교비, 간접비 등을 제공하고 기자들에게는 현장의 경험을 살려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사 쓰기와 읽기, 멀티미디어 글쓰기, 취재실무 및 보도, 멀티미디어 제작과 프로그램 기획 등 현장 출신 언론인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그 대상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언론인 역시 퇴직 후 가장 선호하는 일로 대학에서의 강의를 꼽고 있다(이선근 등, 2015). 2015년에 열린 관훈클럽의 ‘정년연장 시대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 및 활용방안’ 세미나에서 역시 기자들은 퇴직 후 진로로 대학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세미나에서 역시 “이론을 전공한 교수가 97~98%를 차지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가 학계 전체에 2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못 뽑게 된다(이선근 등, 225쪽)”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저널리즘 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변화하는 제작 및 배포 환경에 맞는 저널리즘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최신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뉴스 제작과 배포를 위한 개별 기술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민규(2013)는 미국 미주리 대학의 패트릭 페루치(Patrick Ferrucci)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저널리즘도 기본적인 취재능력에 바탕하고 있다며, 개별 기술에 대한 실습이 아닌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한다. 데이터저널리즘, 로봇저널리즘 등 현업

저널리즘 영역에서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관련 수업을 저널리즘 실무 과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역시 고민거리다. 백영민, 유경한, 그리고 이상엽(2016)은 데이터 과학관련 지식과 기술을 언론학 교육과정에 융합 혹은 추가하는 것이 교과과정 개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확률과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와 구조, △온라인 공간 데이터 수집 기술, △수집한 데이터 분석법과 함께 △프로그래밍의 기본 가치체계로 작용할 언론학의 영역지식 등을 기존 교과과정에 첨가 또는 융합할 지식 및 기술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은 데이터 관련 과목을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무엇보다도 기존 방식의 교육과 새로운 접근법을 지지하는 교원 간 그리고 학생 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백영민 등, 2016).

실사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목을 충실하게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배정근(2013, 10쪽)은 융·복합 저널리즘 과목에 대해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교과목은 물론 학문적 이론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며, 체계적인 교수능력을 갖춘 강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데이터과학 관련 수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와 같은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답함으로써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2: 저널리즘 교육의 바람직한 교과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 3)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혁신

저널리즘 교육이 안팎으로 도전받는 시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우선 교육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저널리즘 교육자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술 및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길러 최신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즉, 학습의 속도는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저널리즘 교육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법이 필요한데 특히 김선호와 오세욱(2017)은 저널리즘 교육자가 본인이 아는 것만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교육자 위주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교육학자 바로우스(Barrows, 1985)가 주창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을 저널리즘 교육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즉, 저널리즘 실무 교육이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수직적 파이프라인 구조를 탈피하고 학습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로 구성된 플랫폼 모델 중심”(김선호·오세욱, 137쪽)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교수자의 역할은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하는 ‘관리자’이자, 학습

자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촉진자'다. 특히 저널리즘 실무 교육에서는 '촉진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교수자보다 더 나은 전문성을 지닌 현업 전문가와 학생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촉진자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실무를 이룬 수업과 대척점에 놓고 이해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Blom & Davenport, 2012)는 목소리도 있다. 이론에서 실용적인 함의를 끌어내거나, 현실 사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언론윤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탈진실 시대를 맞아 언론 윤리에 대한 실무 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자주 언급된다(김영옥, 2018). "언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한 채 조직이기주의나 개인적 이익에 매달리는 현실은 대학 교육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배정근, 2013, 7쪽)처럼 대학 저널리즘 교육은 미래의 언론인에게 윤리 감수성을 심어줘야 한다. 윤리는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여타 실용적 취재, 보도 과목보다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학부 저널리즘 프로그램 학과장 158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우선순위를 둔 과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미디어 윤리와 법' 과목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취재와 스토리텔링'(55%),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47%), '취재와 보도'(40%), '비주얼 커뮤니케이션'(36%), '기획기사'(34%) 등 여타 취재 관련 과목에 대한 중요도보다 높았다(Blom & Davenport, 2012). 저자들은 이 설문을 바탕으로 6개의 저널리즘 커리큘럼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모든 모델에는 '미디어 윤리와 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3개 모델에는 '미디어 윤리'와 '미디어 법'을 별도 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어떻게 잘 취재하고 좋은 기사를 보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저널리즘 교육이 끝나서는 안 되며 수익모델에 대해 고민할 기회 역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김선호·오세욱, 2017; Ferrier, 2013). 현장 저널리즘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 뉴스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최지향·유승철·정선호, 2016). 즉,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라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게을리 했으며 자연히 뉴스 이용자에 대한 조사와 투자도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사의 디지털 유료구독 성공사례에서 보듯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은 좋은 기사를 제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용자를 연구하고 마케팅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디어운동가인 길모어(Gillmor, 2016, p. 816)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언론인은 비즈니스에 무지한 상태"였으며 이제 "저널리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미디어 비즈니스 관련 개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길모어는 본인이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광고, 마케팅, 소셜네트워킹, 검색엔진 최적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저널리즘과 관련한 영리적, 비영리적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한다.

결국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혁신은 현장과 대학 교육의 끊어진 다리를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야 한다. 저널리즘 교육과정이 현장 저널리즘의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장 또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저널리즘 종사자에게 자극과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될 때 저널리즘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저널리즘 환경에서 교육과 업계의 환류(還流)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김영욱, 2018). 해외의 경우 대학이 언론사, IT 기업, 뉴스스타트업, 공공부문 등 저널리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시키고 협업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뉴저지 로컬뉴스랩(localnewsrab.org)은 몬클레어 뉴저지 주립대학교와 지역 50개 언론사가 협업해 저널리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이트-템플 테이블 스테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템플대학교가 공공재단, 기성 언론사와 연계해 디지털 저널리즘, 유료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최지향 등, 2016). 물론 이 같은 프로젝트는 공공재단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널리즘 교육이 학생 취업률 위주의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저널리즘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기능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한국의 대학들도 조금씩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는 2002년부터 정보문화학 연합전공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양승목·김관호, 2015). 언론정보학이 중심이 돼 일종의 복수전공제도를 운영하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공은 특히 이론이 아닌 다양한 실습과목으로 운영되며 일부 과목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HCI 이론 및 실습'과 같은 과목은 학생들이 기업과 공동으로 모바일쇼핑 UI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보와의 인터랙션 방법으로서의 챗봇을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전공 설립 초기에는 게임이나 한류같은 콘텐츠 개발과목이 주로 개설되었는데 최근에는 인터페이스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실습과 이론수업이 병행되는 6학점짜리 수업인 '미래뉴스실습'이 1, 2학기에 모두 개설돼 이 중 1학기는 탐사보도 독립언론인 '뉴스타파'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가 MOU를 맺어 '뉴스타파' 기자들의 지도 아래 수강생들이 탐사보도 실습에 주력하며, 2학기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관련한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데이터 저널리즘, 정보시각화를 익혀 인터랙티브 뉴스 기사를 직접 만들어본다.<sup>3)</sup>

대학과 언론사의 산학협력 사례도 일부 대학에서 관찰되고 있다(김영수, 2013; 정광호,

2010; 홍경수, 2012). 순천향대학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0여 명의 학생에게 KBS 본사와 KBS 자회사, JTBC, 외주기획사, 출판사 등에서 여름방학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결과 총 43명의 학생이 공모전에 수상하는 등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홍경수, 2012). 부산일보도 대학생 인턴을 활용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학생들은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배우고 신문사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김영수, 2013). 하지만 두 학교 모두 대학의 저널리즘 수업과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저널리즘 전공 교수들이 역할을 하지 못했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김영수, 2013; 홍경수, 2012)이 있다. 또한 두 학교 모두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산학협력을 맺어 인턴제를 운영한 것이 아닌 PD출신 교수의 인맥(순천향대)에 의존하거나 이벤트성으로 인턴제를 운영했다. 방송학회와 케이블업체 C&M이 협약을 맺고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선례는 취업으로도 이어지며(정광호, 2012) 좋은 평을 받았다. 이처럼 대학이 언론 관련 기업과 협업해 산학협력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저널리즘 교육 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 현실에서는 어떤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3:** 저널리즘 교육 혁신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3. 연구방법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방법론으로 심층인터뷰를 택했다. 심층인터뷰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며(Eisner, 1991) 특히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Bryman, 1988).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의 경험(context)과 행위(action), 의도성(intentionality)을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게 되고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국지적 환경(local setting)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Lindolf & Taylor, 2002). 연구진은 저널리즘이라는 다소 특수한 분야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시할

---

3) 미래뉴스실습 홈페이지 <https://futurenews.github.io>

수 있는 인터뷰이들은 내부자(insider)인 저널리즘 학계와 언론업계 종사자들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내부자들의 관점을 포착하고자 심층인터뷰를 택했다.

### 1)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과정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intentional sampling) 방법을 이용해 연구진이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직접 선택해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다(Cresswell, 2007). 연구진은 기존 저널리즘 교육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 제시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세 범주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먼저 언론현장과 저널리즘 학계의 경험이 모두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저널리즘 학계와 언론현장이 상생하기 위해서 현재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방송사와 신문사에 재직 중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그들이 향후 저널리즘 전공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언론현장에서 종사하면서 저널리즘 학계에 대해 아쉽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세 번째는 저널리즘 학계 경험이 풍부해 기존의 저널리즘 교육 현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룹이다.

기자경험과 함께 현재 저널리즘 학계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뷰이를 5명 선정했고(A, B, C, D, E) 현재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뷰이 2명(F, G), 그리고 저널리즘 학계에서의 경험만 있는 인터뷰이 3명(H, I, J)을 선정했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Participants

구분	소속매체	현재 직위	기타 경력
A	대학	교수	기자(15년)
B	대학	교수	기자(4년)
C	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넷언론사·신문사·방송사 기자(6년)
D	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자(3년)
E	IT미디어업계	티칭펠로우	인터넷뉴스기자(6년)
F	방송사	보도본부장	기자(28년)
G	신문사	실장	기자(28년)
H	대학	교수	
I	대학	부교수	
J	대학	조교수	

### 2)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은 2019년 7월 한 달 간 진행됐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라 저널리즘 교육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인터뷰 전 연구 목적과 의

의, 자료의 사용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층인터뷰 설문지를 전달했다. 참여자 개인당 대면 면담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였다.

응답자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직장이나 직장 환경 10분 이내의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모두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롭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Ritchie, Lewis, Nicholls, & Ormston, 2014) 대면면담으로 이뤄졌으며 사전에 제공한 공통질문을 먼저 물은 뒤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지거나 공통질문이 아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가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대로 순서를 바꾸는 반(半)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공통질문지는 <Table 2>와 같으며 크게 나눠보면 저널리즘교육 정체성, 교양-실무간의 균형, 교양교육으로서의 방향성, 혁신적 실무교육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Table 2. The Question List of In-Depth Interview

저널리즘교육 정체성	한국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널리즘 특화 세부전공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저널리즘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널리즘 전공자의 저널리즘 업계 진출자 비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양-실무 균형	여러 전공이 통합돼 운영되면서 저널리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교육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저널리즘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 저널리즘 교육에서 교양과 실무의 균형이 잘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미국저널리즘교육인증협회(ACEJMC)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널리즘교육 인증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양교육으로서의 방향성	일각에서는 저널리즘 교양 교육으로서 민주주의와 시민성 강화를 지향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널리즘 교육은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 (예,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등) 중 어떤 모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언론 신뢰가 하락하면서 저널리즘학에서 언론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적 실무교육 방향성	대학 저널리즘 실무교육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국의 경우 대학이 언론사와 협업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델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혁신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과학, 컴퓨터과학 등 저널리즘 교육의 요소로 새롭게 강조되는 분야들이 전통적인 저널리즘 교육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관찰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가 내용을 다시 컴퓨터로 문서화했다. 인터뷰 뒤 연구진은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을 범주화했다. 연구진이 사전에 연구문제화하지 못했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범주는 귀납적으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Corbin & Strauss, 1990).



## 4. 연구결과

### 1) 저널리즘 교육의 빈곤한 실태 (연구문제 1)

#### (1) 저널리즘의 사회적, 학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부재

학계와 언론계를 망라하여 인터뷰 응답자들은 “한국 대학에서 저널리즘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시피하다”(B, C)고 평가했다. “실질적으로 언론 현장에서 필요한 테크닉이나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언론 소비자들을 위한 교육도 아닌 것 같고”(F) “교육의 목표나 가치를 어디에 설정했는지 모호”(G)하며, 저널리즘이 대학교육에 도입된 것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교육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기본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혁신”(B)인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의 저널리즘 교육 실태에 대한 비관적인 진단과는 달리, 데이터과학이나 인공지능(AI)의 상용화로 인해 교육과정 전반이 해체되고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저널리즘은 커뮤니케이션학의 고유한 사회적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지식(domain knowledge)으로 재발견되어야 한다(E, J)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널리즘 교육의 빈곤에 대한 첫 번째 지적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양이나 저널리스트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 혹은 규범적인 인식, 가치관을 가르치는 기초적인 교과과정이 부실하다”(J)는 것이다. 언론산업이 성장세였던 시기에 저널리즘 교육도 동반하여 양적 팽창을 이뤘지만, 교육의 기반이 되는 가치에 대한 성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언론고시 열풍이 불면서 언론 산업도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관련 학과도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것을 보면, 이걸 결국 나쁜 표현으로 트렌디한 학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이 바뀌고, 언론이 망해간다고 해도 이런 전공이 존재해야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을까요.(G)

저널리즘의 학문적 가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취약성은 산업의 부침이나 변화에 따라 교과과정이 유행을 따르듯 급조되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교과과정 운영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육목표도 불분명한 ‘뽕질’식의 처방으로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다.

저널리즘 과목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정통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과목은 거의 없었고, 이걸 변형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인 저널리즘 수업은 있는데, AI저널리즘, SNS 저널리즘 같은... 저널리즘 자체를 다루고 있는 과목은 거의 없고, 있어도 한 학기에 하나 정도. 그것도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외부 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C)

저널리즘 교육의 위축에 대해서는 “매체가 많아지고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데스크톱의 능력 자체가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는데 저널리즘은 사이즈가 그 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있고, 저널리즘 직종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안팎으로 악조건이 생기는 것”(A)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수요라는 건 얼마나 공급하느냐, 어떤 선생님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 뭐가 먼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B)는 주장도 있었다.

사실 언론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이 정말 좋은 애들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애들이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애들도 있었고... 학교수업 방향이 애매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략) (학교가) 계속 몇 발자국씩 늦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가 유행으로 붐이 형성되면 학교에서 급하게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내용은 부실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애들은 계속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D)

대학에서의 가치 교육의 부재는 한국의 언론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치에 대한 한국 언론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정파적인 신념 논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논의를 정파적인 부분으로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언론 관련 학과에서는 물론이고, 현업에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F).

그러나 저널리즘 교육 본연의 존재 가치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려 교육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효용이 회의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커뮤니케이션학) 도대체 뭐하는 학문이냐’라고 했을 때, 저널리즘은 가장 핵심이고, 코어에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전공”(J)이라는 평가가 존재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과가 해야 할 일이라면, 답은 테크니션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영상 제작이든 데이터 사이언스든 테크니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각, 관점, 견해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해야 하는 거죠. VR(가상현실)뉴스를 만든다고 해도,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고. 거기서 어떤 원리, 원칙을 가져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게 기반이 돼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널리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해요. (J)

인터뷰 응답자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학생들이 저널리즘 교육을 외면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저널리즘을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스킬로 생각”(E)하게끔 만들어진 기존의 교육 내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리즘의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역동성, 역사성이 교육으로 드러나지 않고, 기성언론의 관행을 곧 저널리즘으로 등치하여 교육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성 언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아예 저널리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미디어스타트업 등으로) 하고 있는 행위도 사실 저널리즘 행위예요. 기성언론이라는 그 기표를 따다 쓰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오염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들도 계속 고민하는 건 바텀업(bottom-up)으로 새로운 정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기표를 저널리즘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저널리즘의 정의와 새로운 저널리즘의 정의들이 충돌해서 더 건강한 저널리즘의 새 정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 그것들을 저널리즘의 큰 영역 속에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E)

## (2) 백화점식 학과 구성에 따른 독립적이고 짜임새 있는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부재

현장의 교육자들은 “저널리즘은 독립적인 커리큘럼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B)라고 지적했다. 저널리즘 교과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개의 강좌를 난이도를 달리하여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과과정 설계, 교원채용 구조로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A, B). “실무교육을 받음으로써 와중에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학문 영역”(A)으로서의 저널리즘 교육은 “교양교육의 경우 정말 일반적인 것 몇 개, 실무교육은 심화·집중하는 복합교육으로 가야하지만, 한국의 대학에서 이 목표의 실현가능성은

났다”(A)고 전망했다.

지금 구조로 극복하는 건 어려워요. 지금 구조로는 그냥 선생들이 자기 좌편에 있는 과목들을 하나씩 가르치고, 그 사람 나가면 좌편이 확 바뀌고, 근데 그 좌편들끼리는 유기성이 없고 그런 구조잖아요. 인턴십도 잘 못하고, 취업을 도와주는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도 않고, 대학원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포커스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그 틀 자체가 어느 정도 전제가 맞춰져야 가능한 얘기지 지금 백화점식 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을 전제로 개선안을 이야기하려면 힘들어요. 그 전제를 허물어야 돼요.(B)

“저널리즘 교육의 근간이 되는 미디어 글쓰기의 경우만 해도 공문서나 논문을 쓰는 것과는 다른 글쓰기의 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과목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돼야 하지만”(B) “한 학기에 개설되는 저널리즘 관련 과목 자체가 많아야 4,5개”(A)인 현실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저널리즘 교육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집중 저널리즘 교육의 두 가지 목표를 다 만족할 수 있을만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개설되는 교과가 적다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달라지는 연속성 있는 교육도 시행되지 않는다.

지금 정말 한 과목 가지고 하는 곳에서 빅데이터를 하시겠다. 이걸 기초가 없는 데에 고층 건물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적어도 과목의 시퀀스라는 게 있어야죠. 미국 대학들은 선수(prerequisite)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선수과목을 해보니까 운영이 안 돼요. 기사작성기초를 듣지 않은 학생들은 취재보도실습을 들어오지 마라 이러니깐 게다가 돼버려요. (중략) 그만큼 우리는 로지컬하지 않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에서 배워야 할 것, 중급에서 배워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거죠.(B).

백화점식 교원채용구조로는 제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모범적인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학교가 모델 케이스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B).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이 이러한 커리큘럼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많이 봐야 4~5개, 2~3개 정도의, 학과가 큰 대학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A)는 것이다.

내실 있는 커리큘럼의 부재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저널리즘 교과를 가르칠 교수진의 구성이었다.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총체적으로 실무 쪽과는 관계가 없이 이론 교육만 하

다 보니, 극단적으로는 대학원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부를 운용하는 상황”(B)이기 때문에 “저널리즘 실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뽑는”(A) 경향이 고착화했다. 실무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의 채용이 활발하지 못한 데는 학교와 언론 현장 양쪽에 모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학교에서는 SCI 실적 위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구조이고, 언론 현장에서는 공채시스템을 적용해 대학에서의 저널리즘 교육 경험여부와 무관하게 필요 인력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 실무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B)이다. 이러한 실무교수진의 부족을 강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소해왔지만, 그마저도 강사법 시행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실무능력을 갖춘 교원확대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각 학교의 사정상 이걸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학과에 한 번에 다섯 명 이렇게 뽑지도 않고, 뽑아봐야 한두 명 사이인데, 이 자리를 저널리즘에 줄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코딩 중요하다고 하니깐 코딩 뽑고, 디지털 모바일 중요하다고 할 때는 영상 쪽 사람 뽑고,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저널리즘 사람을 뽑겠어요. 그러니깐 한국은 저널리즘 교육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죠. (A)

한편으로는 실무위주의 저널리즘 교육 못지않게,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수진이 스스로를 갱신하는 노력, 즉 “배워서 가르쳐야 한다”(J)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요구되는 개인적인 역량은 데이터 사이언스고, 그에 따라 교과과정도 사실 많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과정을 개편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저널리즘 교육의 기초가 없었는데, 기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며 저항하는 분들이 있다. 이걸 낡은 것과 기초를 구분하지 못하고 헛갈려하는 것”(J)이라는 지적이었다. “새로운 트렌드에 특화된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채워 넣고, 이를 전담하게 하면서 기존 교수진은 자기 갱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과 내에서는 물론이고 학문분야의 이질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J)는 우려였다.

### (3)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저널리즘 교육인력의 부족

저널리즘은 “강의실에서 뉘가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A) 실무 경험이 강조되지만, 현장과 학교의 연계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경험을 가진 자원이 교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실무경력을 가진 강사의 교육내용이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현장과 학교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커리큘럼 자체가 빈약하게 짜여있고, 그마저도 외주를 주는 현실 때문에 교육의 지속성이 떨어  
져요. 기사작성기초를 3개 분반을 만들면 세 사람이 다 다르게 가르쳐요. 강사가 다르면, 경험  
의 폭이 다르고, 독서의 양도 다르고... 특히 티칭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다보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깐 그냥 농담이나 하고 넘어가고, '현장에선 이래' 이라고 지나가면 그건 교육이 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B)

저널리즘의 근본 원칙, 저널리즘의 원리라는 것들도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잖아  
요. 그러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을 하면서 논의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안 갖춰지는  
거죠. 그건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더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던 기자생활, 저널리스트 생활의 바운더리 안  
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 즉 외부자의 시선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런 사건들, 사례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널리스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실무나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널리즘의 학부 교육을 하다 보면 기본기라는 것이 없는 상태  
에서 아무 거나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J)

이러한 한계 때문에 대학에서 이상적으로 바라는 저널리즘 교수자는 “학위가 있는 안 비싼  
현장 언론인” 즉, “실무를 이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사람” “실무와 기본기를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이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C, J)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 출신으로 실무 강의를 맡는 강사들에 대한 현장 언론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았  
다.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언론인들이 교수와의 ‘안면’이나 ‘정치적 안배’에 근거해 강사  
로 추천되어 후학양성에 모범이 되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F, G). 현장  
과 학교와의 어긋난 결합은 “미국처럼 현장 출신으로 학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괜찮은 언론  
인이야, 가르칠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F)이  
라고 지적했다.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서 석좌교수다 뭐다 해서 (학교에 은퇴 언론인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정  
치적인 연줄도 얽혀있고, 그런 분들이 학교 가서 왕년에 내가 말아야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현업에서 진짜 고민하던 사람들이 가서 장차 언론을 소비할 사람들이나 언론인이 될 만한 사람  
들을 애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언론을 바꾸려면 너희들이 바뀌어야 해, 너희들이 똑똑해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F)

“저널리즘을 전공한 적도 없는 사람들(교수들)이 와서 급하게 저널리즘을 가르치는 경우나, 급하니까 현업에 있는 강사를 섭외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모두 “과연 저널리즘에 대한 교육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실로 지적됐다. 저널리즘 교육을 하겠다면 최소한 “그때그때 매 학기 급하게 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G)한다는 것이다.

## 2) 바람직한 저널리즘 교육과정의 구성 (연구문제 2)

저널리즘 교육과정의 구성은 언론인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저널리즘을 주 전공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널리즘 핵심교육과 저널리즘이 시민 교양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터뷰 응답자들은 제안했다.

### (1) 저널리즘 ‘핵심’ 교육과목의 구성 요소

#### ① 고유 콘텐츠(original contents) 생산 능력 함양 과목

학계와 현장의 인터뷰 응답자들이 모두 강조하는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은 남이 만든 콘텐츠를 짜깁기하는 2차 생산이 아니라 스스로 발굴하고 취재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고유의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물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이지만, 기사쓰기의 기계적인 매커니즘을 배우는 것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 취재능력, 취재한 자료의 분석과 종합 능력 등이 길러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A, B, F, J)

저널리즘에서도 ‘데이터과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국가나 전 세계가 AI에 목숨 걸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그런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하느냐 하면, 이런 AI를 포함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에서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뽑아내긴 하지만 우리가 아날로그 쪽으로 정통적으로 보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애네들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널리즘이 연속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저널리즘이. (A)

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의 저널리즘 활동도 모두 ‘기사

쓰기로 귀결된다. “언론인의 산물은 기사이고, 기사는 일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쓰는 사람만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다”(H)는 관점에 비추보자면, 글쓰기는 고유의 내용을 생산해내는 저널리즘 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마치고 언론계에 입사한 신입기자들의 글쓰기 역량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젊은 세대의 글쓰기 매체이용 경험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엉망”(F)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문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글은 사고를 반영하기 때문에 글을 그렇게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비판적 사고가 안 되는구나”(F)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글쓰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부과정에서 강화해야하는 것은 글쓰기의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훈련이며 이는 “동일한 사안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기사들을 가져다 놓고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가를 찾는든지, 서로 다르게 묘사한 기사들을 보면서 의견과 팩트를 구분해 낸다든지”(F)를 토론하는 것 등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판적 사고가 저널리즘 글쓰기의 출발점이라면, 특정 사안에 대한 취재력과 취재한 내용을 구성해내는 능력은 글쓰기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전공자의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연마되어야할 능력으로 꼽혔다(B,G)

학생들에게 취재의 개념이 없어요, 전혀. 다 그냥 인터넷에서 굶어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어디 가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곳에 많이 올라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진실일까? 누가 썼는지 알 수 있을까?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질문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B)

저는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체계화가 되려면 그게 텍스트가 됐든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다른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됐든, 그걸 나중에 풀어 쓰는 스킬은 현업에 가서 혼나면서 배우면 금방 또 늘어요. 오히려 그 전 단계 즉 어떤 사안을 놓고 분석하고, 접근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뽑아내는, 일종의 취재와 아이템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G)

## ② 실무 상황에 적용 가능한 윤리교육 과목

뉴스 이용자들로부터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언론현실에 비추어보면 언론윤리가 지켜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론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에서 윤리교육이 필수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



지만, “이론적인 레벨이 아닌 실제 취재활동과 매커니즘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다”(A)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무와 결합된 윤리교육은 실제 취재를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최근 YG 사건<sup>4)</sup> 관련해서 H씨가 내부고발자로 공익 제보를 했는데 한 방송사가 찾아가서 “제보자가 당신인 걸 알고 있다. 답해달라”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내부 고발자, 취재원 보호는 대 원칙인데 언론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문 두드리는 것을 내보낼 정도면 정말 이거는 기초가 없어도 너무 없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별 게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마인드가 있고 없고가 취재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D)

대학교육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를 다루보는 것은 이후 기자가 되어 “정답이 없는 상황”(D)에 맞닥뜨릴 때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지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기자가 맞닥뜨리는 도덕적 딜레마가 구체적인 만큼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교육도 구체적인 사례에 철학적 성찰을 대입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고 제안되었다. 윤리교육이 취재현장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맞물리지 못했을 때 자칫 언론에 대한 오해를 낳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기자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가장해서 취재를 해’라고 하지만, 기자가 돼서 현장에 나가는 순간 신분을 가장하지 않으면 취재 자체가 안돼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봤을 때 언론 윤리 교육을 별도로 강의실에서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차라리 교과목에 언론 자유를 박아야 합니다. (A)

저널리즘 윤리교육은 입사 3~5년차의 연차가 낮은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되는 시기에 “그냥 직장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널리스트가 될 것인지”(E) 선택을 가르치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현장 관찰도 제시됐다.

---

4) 2019년 연예기획사 양현석씨와 그가 설립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일련의 사건들.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과정 속에서 언론의 역할, 저널리즘의 역할이 갖고 있는 미션에 동의하는 사람과 전혀 아닌 사람들 간의 퍼포먼스 차이는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동의하는 쪽이라면 내가 조금 더 고민해서 질적으로 더 나은 기사를 생산하든, 훨씬 더 내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반대 쪽은 완전히 뛰쳐 나가버리거나, 그냥 직장인들처럼 위에서 내리는 지시대로 기사를 생산해 내는 거죠. 저는 그 타이밍에서 적어도 저널리즘에 대한 이상과 비전,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부터 교육받아 끌고 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해서 들어 온 사람들의 분기점들이 생겨서 (대학 저널리즘) 교육의 실효성들이 이 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요. (E)

### ③ 저널리즘의 권력 감시 기능 수행을 돕는 데이터과학 교육 과목

혁신적인 저널리즘 교육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 데이터사이언스와의 결합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꼽혔다(A, E, H, J). 그러나 현재 대학의 저널리즘 강의에서 데이터 과학이 접목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현장과 연구자 모두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C, F).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언론의 전통적인 역할인 권력감시(E)에서 향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점도 제기됐다.

먼저 데이터는 취재의 출발점이 되는 정보원(source)으로서 인간 취재원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정보 출처가 다양해져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수집된 데이터들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I)는 것이다. 결과물도 글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픽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독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이 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 만큼 저널리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이에 대한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즘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결합은 저널리즘을 전공하는 학생들 모두가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종적인 목표점을 잃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이 오히려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가보면 실무를 원해요. 무슨 실무를 원하냐면 코딩을 원해요, 다들. 커뮤니케이션학 교육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코딩은 컴퓨터 과학에서 제일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꾸 그걸 가르쳐요. 진짜 저널리즘 전문가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중략) 기술의 시대니까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 기술자들이 제일 잘 하

는 영역에 자꾸 우리 학생들을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저널리즘은 컴퓨터가 못해요. 진짜 저널리즘은 컴퓨터가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C)

대학 교육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수준은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 엑셀 같은 걸로 표를 짜는 사람들 같은,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스킬”(I)이다.

보도국에 200명의 기자가 있는데 모든 기자가 R코딩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다 데이터 분석으로 기사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마이닝은 한 두 명 있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그게 중요해지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해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전문적일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비판적인 사고인 거죠. (F)

따라서 저널리즘 교육에 데이터 사이언스 결합을 강조하는 교육자나 연구자도 결합의 방식이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통계적인 스킬, 프로그래밍을 다 배워야 하는 것기보다는 그런 스킬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시급”(I)하며 “코딩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코딩을 잘 하는 사람들하고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C)고 강조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저널리즘의 결합은, “기계의 힘을 빌려서 기사의 신뢰도와 가치들을 높이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다뤄야 할 것인지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든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스킬들로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하거나 프레임에 맞춰서 가는 것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문제에서도 y축에 장난질을 하고, x축에 장난질을 해요. 이게 사실은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걸러야 하는 거죠. 옛날로 따지면 교열 수준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들을 세우기 위한 윤리적인 경계, 규칙, 기준들을 생성해 내지 못하는 것이 저널리즘 교육의 확장되지 못한 한계, 변화되지 못한 저널리즘 교육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E)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됐다. 지금까지는 저널리즘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이 정부를 비난하거나 찬성하는 쪽으로 논의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선택하는 것들이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받고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역공학(reengineering)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E)는 주장이다.

진실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가림막을 치고 있는 권력이 뭐냐,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를 생각했을 때, 기술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역공학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데이터를 배워서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해가면서 감추고자 하는 것들을 탐구해볼 수 있어야죠. 이런 능력이 교육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실로 치고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E)

#### ④ 사용자 기반 저널리즘 환경의 이해를 증진하는 과목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지 않는 “사용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용자 이해가 저널리즘 교육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야 한다”(I)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게 하기 위한 핵심은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러려면 사용자들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인 수용자라는 개념과 달리 사용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주체다. IT쪽에서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언론 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I).

저널리즘 교육에서 사용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뉴스인가, 무엇이 저널리즘인가가 뉴스의 생산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 의해 규정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중요한 정보유통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고, 언론사가 자기들이 만든 신문을 위해 쓴 기사를 여기에 공급만 한다, 이런 상황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정보를 사람들이 탐색한다면, ‘스피커야 오늘 뉴스는 뭐니 들려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냥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것 같아요. ‘고유정 사건 어떻게 됐니? 그래서 재판은 언

제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거죠. 언론사에 게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언론이 아니다. 그냥 Q&A시스템이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게 언론일 수도 있거든요. (I)

이러한 환경에서 뉴스 생산자 중심 문법에 익숙한 언론사가 변화하기보다는 미디어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해서 성공모델이 나오는 것이 저널리즘 혁신에 더 빠른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들 수준에서도 미디어 스타트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하고”(I), 그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학부생들 수준에서 사용자 이해를 위한 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인터뷰 응답자들은 아주 적은 규모라도 학생들이 직접 목표로 하는 사용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조사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E,I).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일반수용자(general audience)를 가상의 독자로 상정해온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 저널리즘 모델을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뭔가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 니즈(need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것들을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중략) 사용자 니즈를 찾을 때 일반적인 것을 찾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규모 통계 조사를 해서 평균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내는 게 좋다고 하고, 보통 그런 것들을 인터뷰로 많이 조사를 시키는데... (중략). 항상 하는 얘기가 평균적인 사람(average person)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적인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면 아무 것도 아닌 게 된다. 독특하고, 구체적인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I)

## (2) ‘시민 교양’으로서의 저널리즘 교육과목의 구성: 언론자유, 시민성,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저널리즘이 지켜지는 것은 직업적인 언론인들의 뛰어난 역량과 투철한 윤리 의식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매체 환경에서는 저널리즘 소비자들의 언론자유와 표현자유에 대한 인식,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잘 대우할 수 있는 시민성의 함양, 언론소비의 윤리 등이 시민이 갖춰야할 교양으로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인터뷰 응답자들은 제안했다. 교육이 수행되는 단위는 학과의 범위를 넘어 전체 대학

의 필수교양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A, J)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소양으로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가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언론법을 기자나 피디만 배우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는 사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거거든요.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이 충돌하는 현상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게 언론법의 큰 주제고요. 그 안에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 음란물 규제 등등의 소주제가 나뉘지는 거거든요. (D)

언론행위의 주체가 직업적인 언론인을 넘어서 다변화되고 시민이 언론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도 변화된 매체환경에 맞게 교육되어야 한다.

취재원 보호 관련해서는 원칙을 보면 기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시민으로서 제보를 할 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원칙에 넣은 경우도 있어요. 제보를 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서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시민으로서) 유투버가 돼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알고 지키는 게 맞는 거죠(D).

두 번째로 강조된 것은 시민성의 함양이다.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 매체환경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대할 수 있는 시민성(civility)의 역량이 쉽게 길러지기 어렵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러한 매체환경인만큼 “소통과 배려, 대화와 설득… 이런 큰 커뮤니케이션 교육 안에서 시민성 소양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J)고 제안했다.

필터버블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몰라요. 애네(학부생들)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동안 기계가 추천하는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취향이 가장 중요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근데 다양성이라고 할 때, 다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관점이 아니고. 다양성이라는 건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는 거다.. 그게 다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길래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 (중략) 저널리즘이 가르쳐야 할 게 그거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도 중요하다 라는 걸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미디어가 있는 거고, 언론이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널리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

이러한 시민성교육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부 커리큘럼이 들어가고, 철학과도 들어가고, 국문과도 들어가서, 조금 더 깊게 사고할 수 있는 교재나 텍스트 같은 것들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표현을 하거나, 사고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교과목들을 만드는”(E) 학제적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E)

교양교육의 내용으로 제안된 세 번째는 정보환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유튜버,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저널리즘이라 할 만한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널리즘을 제도권 언론에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연을 넓히고 그에 따라 저널리즘 교육도 확대”(J)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저널리즘의 외연확대 맥락에서 “생산자의 언론 윤리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언론에서 던져주는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비판할 것인가에도 (윤리적 교육이) 적용”(G)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윤리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별 없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기자들도 (뉴스) 유통을 하지만, 독자들도 인플루언서가 매체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우리 기사를 어디에 걸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트래픽이 정말 출렁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야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뉴스 소비자가 유통의 역할도 하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의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쌓아 가고, 계속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새롭게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윤리라고 봐야할지, 리터러시로 봐야할지는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G)

바람직한 저널리즘 교과과목 구성에 대한 인터뷰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e Curriculum Models

저널리즘 '핵심' 교과과목 영역	저널리즘 전공 '교양' 교과과목 영역
△ 고유콘텐츠 (Original contents) 생산능력 함양 과목	△ 언론자유와 시민의 권리
△ 실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교육 과목	△ 시민성 교육
△ 저널리즘 권력 감시 기능 수행을 돕는 데이터과학 교육 과목	△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
△ 사용자 기반 저널리즘 환경의 이해 증진 과목	

### 3) 저널리즘 교육 혁신의 선결조건 (연구문제 3)

#### (1) 좋은 저널리즘 모범사례의 정리를 통한 저널리즘 교육의 가치 재정립

제대로 된 저널리즘 커리큘럼이 없다는 문제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 교육을 하기 위해 무엇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현장경험을 통해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저널리즘의 특징을 고려하면, 좋은 교과서는 뛰어난 실천(best practice)사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실천사례들을 정리한 선집(anthology)자체가 없어, 무엇을 좋은 저널리즘 교육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와 언론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F,H).

훌륭한 기사, 탐사보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 보도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읽다 보면 개인이 느끼는 잔잔한 감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게 교육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요. (중략)... 미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저널리즘 교육이 별도의 교육적인 기관이나 제도에 의해서 된다면 보다는 열망이나 동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실제 현실에서의 좋은 저널리즘 실천 양식을 보고 그걸 강하게 흉내 낼 때에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학습이지 어떤 전문적 교육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러닝이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중략) 우리가 만약 좋은 언론인을 만드는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건 교육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니까. 그런 열정과 동기를 갖추고 있는 시민 언론인 후보들에게 훌륭한 모범이나 전범을 주면 어떨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업적, 이런 것들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H)

좋은 저널리즘의 사례가 쌓이지 않았다는 문제는, 무엇을 좋은 저널리즘의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언론인



되도를 낮추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지향성이 어떠한 좋은 언론이라면 이러한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기준점이 제시되는 것이 언론을 둘러싼 모든 논의가 정파성으로 환원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됐다. “누가 어디서 뭐라하든, 언론으로서의 원칙에만 충실한 기준”(F)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에 대해 대단히 낮은 평가를 하고, 반대로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언론에 낮은 평가를 하니,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평가를 두고 신뢰도가 어찌니 저찌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언론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냥 인상비평만 하는 거죠. (중략) (해외의) 언론윤리 교과서를 보면 객관적으로 사례들을 잘 조사해서 분석해 놨잖아요.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했고, 이 문제에서는 이런 원칙이 문제가 됐고, 이런 정리를 아주 잘 해놓았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국내 언론교육에서는 이런 분석을 한 책이 없죠. 그냥 정치적인 공격만 있죠. 조중동 아웃, 한경 아웃. 이런 식의 정치적 공격만 있지, 그렇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상대방이 들어봐도 교재로 쓸만하더라는 연구는 전혀 없던 말이죠.(F)

좋은 저널리즘의 사례를 묶어놓은 선집이 없는 것은 한국언론사(史)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언론의 취재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보도가 사회변화의 촉매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저널리즘이 교직하는 기록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평가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한국 언론의 역사라는 게 있는데, 창고를 열어보면 보물 상자가 없고, 너무 가난한”(H)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선집이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사 모음집이 아닌 역사적 맥락과 당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끈 훌륭한 기사들을 골라, 선행 사건,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취재과정,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의 실천을 해외의 기준에 견주어볼 수 있도록 하는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의 필요성도 제기됐다(H).

선집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의 선도”(H) “학계와 언론계의 협업”(F)이 제안되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누가 할 거냐는 문제죠. 주변을 둘러보면 참 드물거든요. 어느 한 정파에

속하지 않고, 그런 균형 감각을 갖춘 언론인을 찾기가. (중략) 그런 일련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평가작업이 먼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세 학회가 합동으로 하면서, 방송협회, 신문협회 이런 곳에 토론 참여를 시켜서 커리큘럼 개발을 한다든지, 거기서 교재같은 것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하면...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를 찾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F)

한국언론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좋은 언론의 기준을 세운 교재를 만들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육성해서 현장에서 대학으로 보내야, 일화적인 무용담을 늘어놓는 실무교육을 지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 (2) 현장과 대학의 유기적인 연계

저널리즘 교육의 현장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언론 현장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는 약하다. 언론기업이 미래 인력의 저수지인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과 연구기능 향상을 위해 투자하지도 않고, 기업이나 독지가들도 혁신적인 저널리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출자하기는 꺼린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는 하나의 대학에만 그렇게 하다보면 나머지 대학들이 적이 되는 거고, 두번째는 왜 하필 미디어 쪽이냐는 거죠. 괜히 선행한다고 거금 내고, '언론 쪽에 뭐 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색안경 낀 시선을 받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하면 안했지, 굳이 내가 돈 내면서까지 욕을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미국에 있는 비영리 저널리즘 모델이 한국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이거든요. 돈은 100억, 200억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분야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약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

인터뷰 응답자들은 '언론현장과 대학의 협업'이라는 목표점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학의 비용지불을 줄이면서도, 유능한 실무인력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기자들 중에서도 여기서 활동 잘 하고 역량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가서 몇 년을 봉사하는 식의 모델을 어느 학교든 만든다고 하면 현업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겠죠. 특정 몇 군데

언론사의 경제나 사회, 윤리법제, 글쓰기, 제작 이런 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을 통해 후학들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 일 년 전에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런 안식년일 때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가서 해보고 괜찮으면 몇 년 더 하면서, 그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대학들도 사실 전임교원처럼 급여를 주는 것은 어려울 거고, 안식년에 간 사람들도 그냥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면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원을 선별해서.(F)

변화가 일어나는 저널리즘의 다양한 영역을 한 사람의 교수자가 모두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꾸리듯 강의를 수행하며 각각 특기분야를 가진 현장인력을 수업에 끌어들이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하고, 현장의 인력이나 개발자들을 강의에 참여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C)

언론사가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을 현업에 결합하는 방법도 추천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취재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채택이 되면 기자들과 같이 협업하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아이디어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회사에 한 적이 있는데 발전이 안 됐어요. 같이 네트워킹 했던 친구들이 다 기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우수한 자원들을 우리가 기자로 유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우리 독자로서, 오피니언 리더급 독자로서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쨌든 관련 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뉴스나 언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G)

## 5. 결론 및 논의

심층인터뷰 결과는 저널리즘 교육의 빈곤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저널리즘과 저널리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한국 언론현실에 기반한 ‘좋은 저널리즘’ 교과서 개발

인터뷰 응답자들이 바람직한 저널리즘 교육을 위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좋은 기사의 모범 사례를 선집으로 정리해 이를 텍스트로 삼는 일은 저널리즘 교육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를 뽑아내려면 먼저 무엇이 좋은 저널리즘(good journalism)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학계와 언론계가 산발적으로 논의해온 가치에 대한 연구와 규범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공중에게 정보를 빠르게 전할 것, 공중을 위해 감시견이 될 것, 객관성을 실천할 것, 시민저널리즘을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을 도울 것’(Gil de Zúñiga & Hinsley, 2013, p. 928)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기준으로 꼽힌다. 한편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직업기자협회(Society for Professional Journalists)가 1926년 처음으로 윤리기준(code of ethics)를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진실을 찾아 보도할 것(seek truth and report it)’, ‘취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를 최소화할 것(minimize harm)’, ‘독립적으로 취재할 것(act independently)’, ‘책임성을 가질 것(be accountable)’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설정(Iggers, 2018)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무엇이 좋은 저널리즘이며, 좋은 뉴스를 이루는 요소인가에 대해 이론적인 개념을 제안하는 연구(이민웅, 2002; 이준웅·김경모, 2008), 투명성 등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도를 이 기준에 따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김경모 외, 2018; 박재영, 2013)이나 한국의 언론인들이 무엇을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언론인의식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남재일·이강형, 2017) 등이 시도되어 왔지만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상태다.

학계와 언론계가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놓고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는 이

론과 실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할 수 없는 저널리즘의 특성 때문이다. 예컨대 학계에서 좋은 뉴스가 갖춰야 할 요소로 꼽는 뉴스의 객관성은 취재과정에서의 자세, 습관, 테크닉, 기질들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 있는 객관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To study objectivity in shirtsleeves is to watch objectivity in the making)” (Daston & Galison, 2007, p. 49) 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대한 관찰에 기반하지 않으면, 한국 저널리즘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어온 정파성 등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대안으로서의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이 도출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967년부터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해온 한국기자상의 수상작들을 검토하여 그 심사기준의 추이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 저널리즘의 이론과 현장을 결합하여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서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작업이라 할만하다. 이는 언론 현장에서 상정해온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탐색하는 일, 모범적인 기사를 남기거나 역사적인 현장을 취재했던 언론인들의 경험을 기록과 구술사로 함께 정리하는 일 등 그동안 한국의 저널리즘 학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아왔던 영역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뉴스의 이용자들은 무엇을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좋은 저널리즘과 뉴스의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Gil de Zúñiga & Hinsley, 2013; Van Der Wurff & Schoenbach, 2014)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바다. 뉴스 이용자들이 저널리즘에 바라는 바나 불만을 이해하지 않은 채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상정하는 일은 수용자의 시대에서 사용자의 시대로 변화해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실제와 동떨어진 이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뉴스의 이용자들이 무엇을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설정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고려요소다.

## 2) 학계·언론계의 실질적 연계 통한 질 좋은 실무 교육 시스템 구축

두 번째로 학계와 언론 현장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질 좋은 실무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저널리즘 학계와 언론 현장이 상호 소통 없이 괴리된 채 존재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좋은 저널리즘은 결국 훌륭한 기자로부터 나오고 훌륭한 기자 후보를 양성하는 것은 결국 대학의 몫이다. 최근 공채 위주의 언론사 기자 채용 방식은 바뀌고 있다. SBS와 YTN, MBC와 같은 방송사를 중심으로 신입은 줄이고 경력은 늘리고 있는데, 입사 5년차 이하 기자의 수가 8.8%로 113명에 불과하다는 2016년 통계는 이러

한 채용 경향을 반영한다(김성후, 2016).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으로 구성된 기존의 채용방식으로는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고, 공채로 기자를 선발하더라도 언론사가 처음부터 도제식으로 모두 가르칠 여력이 없는 것이다(송현주, 2019).

따라서 기존의 배우기 식 실무교육과, 퇴직 언론인 위주의 무응답 수업에서 벗어나 능력있는 언론인을 선별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임교원을 확충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능력있는 기자들이 학교에서 실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교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사와 학교가 협약을 맺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자가 몇 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회를 주거나, 언론사의 안식년제도를 활용해 베테랑 기자들에게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실무 교육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테크니컬한 글쓰기 교육뿐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키우기나 취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까지도 실무교육의 영역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 같은 교육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없으며 현장과 긴밀하게 결합된 교육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장 언론인들의 학계 강의를 기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한국언론재단이나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에서 공통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교수 기술(teaching skill)을 교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널리즘이라는 학문 성격상 이론과 실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교육과 함께 이론을 접목해 배울 수 있고 현장 언론인들도 매일 매일 마감에 쫓기며 잊었던 저널리즘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가 커리큘럼에 현장실습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학생들이 지역언론이나 주요매체에서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역시 필요하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도하다 좌초된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이 역시 꼭 필요한 저널리즘 수업 방식이다.

학계와 언론 현장의 협업이 이뤄질 때 최근 저널리즘 학문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혹독한 비판들은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널리즘 학문에 쏟아지는 가장 큰 비판 가운데 하나는 “현실 문제에 대해 해결점과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학문(남궁협, 2013, 79쪽)”이라는 점이다. 언론사의 보도 품질까지도 정파성에 가려 상대 진영에 의해 가치가 폄하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언론 신뢰도나 언론 윤리와 같은 중요한 가치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하락하는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 학계가 현업에 있는 언론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보다 건강한 저널리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3) 저널리즘 ‘모델 교과과정’ 수립

마지막 제안 사항은 학계, 업계, 언론 관련기관 등을 망라하는 저널리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내 저널리즘 교육에서 참고할만한 모델 교과과정(model curriculum)을 수립하는 것이다.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은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가 담겨 있지 않은 채 트렌드에 따라 좇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저널리즘 교과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널리즘 교육을 시행하는 학과 및 학교의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과과정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모델 교과과정 수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현 저널리즘 교육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돌아보고, 저널리즘 교육의 핵심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저널리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밑거름 삼아 함께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 커리큘럼은 보편적인 동시에 각 학과의 특수성에 따라 변용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생 규모, 교원 수급상황, 학과의 교육 목표 등에 따라 다양한 시퀀스로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식일 수도 있다. 국내 환경에서 완벽한 적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형태로 유네스코(UNESCO, 2013)가 발표한 <저널리즘 교육을 위한 모델 교과과정(Model Curricular for Journalism Education)>이 있다. 이 모델 교과과정은 저널리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호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에 있다고 본다. 이 큰 방향성 아래 보고서는 △미디어 지속발전가능성(Media sustainability), △데이터저널리즘(Data journalism), △문화 간 저널리즘(Intercultural journalism), △글로벌 저널리즘(Global journalism), △커뮤니티 라디오 저널리즘(Community radio journalism), △과학 저널리즘(Science journalism), △젠더와 저널리즘(Gender and journalism), △인도주의 저널리즘(Humanitarian journalism), △인신매매 보도(Reporting human trafficking), △안전과 저널리즘 (Safety and journalism) 등 저널리즘 교육이 세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10개의 분야를 제시하고 관련 수업의 모델 강의계획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해당 교과과정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과 초기 민주주의 단계(emerging democracies)에 있는 국가에서의 저널리즘 교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그대로 참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과정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나 보고서의 형태 등은 참조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는 특히 디지털 뉴스 환경의 도래와 함께 많은 저널리즘 관계자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이나 데이터 활용기술 등을 저널리즘 교과과정에 녹여낼 방법을 고민하는데 있어 저널리즘 교육 자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뉴스 및 정보 이용의 주요 수단이 됨에 따라 저널리즘 교과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고민한다거나(Bor, 2014), 소셜미디어 관련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등(Hirst & Treadwell, 2011) 저널리즘 교과목 자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이 기술의 변화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학문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저널리즘 학문에 대해 이뤄지는 비판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과학이라는 전문적 학술 패러다임 속에 갇혀 연구자들이 지적 장벽을 치고 있다(박진우, 2013, 6쪽)”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사회적 사실’을 시청자와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인 만큼(심석태, 2012) 정보의 전달(transmission)이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임영호, 2013)이 아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성찰, 그리고 비판을 통해 고유의 콘텐츠(original contents)를 생산해내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자 지망생이 줄어들어 저널리즘 학문이 인기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더 이상 고루한 학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에 고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기르는 전공이라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VR이나 AI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자 지망생이 아니어도 저널리즘 스타일의 글쓰기와 사진, 영상 촬영과 편집에 관심있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수요를 적극 활용해 저널리즘 교육과정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송현주, 2019).

모델 교과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저널리즘 학계와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회가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의 모델 교과과정은 2012년 미국언론학회(AEJMC) 당시 열린 사전컨퍼런스(pre-conference) 워크숍과 유럽커뮤니케이션컨퍼런스(European 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 진행한 세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문헌연구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20세기말 저널리즘 교육이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미국언론학회가 교과과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련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AEJMC Curriculum Task Force, 1996)도 참조할 만하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전공생, 교육자, 현업 언론인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내 저널리즘 학과장들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저널리즘 과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사례(Blom & Davenport, 2012)나 언론사 입사 지망생을 대상으로 대학 저널리즘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묻은 연구(남재일·최민재, 2005) 등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과과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아무 학교도 도입하지 않으면 헛수



고가 될 것이다. 저널리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몇 개의 학교만이라도 이 모델 교과과정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 성공사례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저널리즘 업계와 교육계에 만연한 냉소주의를 딛고,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을 위해 작지만 같이 한 발자국씩 내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본 연구는 현황의 일부만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전국 저널리즘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각각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좀 더 폭넓은 자료조사를 했다면 저널리즘 교육의 현실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대상자가 주로 서울을 근거로 취재 또는 교육하는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저널리즘 교육 현실의 매우 일부만을 파악 가능케 했다. 또한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인터뷰의 대상자를 전문가 그룹으로 한정한 데 따른 한계도 있다. 특히 저널리즘 교육의 당사자인 관련 전공 학과 재학생, 그리고 저널리즘 교육을 받고 현업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 언론인 등을 통해서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해법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긴 셈이 됐다. 심층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결론이라면,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은 어느 한 구성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과, 나아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학계, 언론계,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References

- ACEJMC (2019). Nine accrediting standards. From <https://www.acejmc.org/policies-process/nine-standards/>
- AEJMC Curriculum Task Force (1996). Challenge: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chang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50, 16-25
- Baek, Y. M., Lee, S. Y., & You, K. H. (2016). Now we stand at the crossroads of crisis or redevelopment: Suggestions for successful curriculum reform of communication studie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3(4), 5-37.
- Barrows, H. S. (1985). *How to design a problem-based curriculum for the preclinical years*. New York, NY: Springer.
- Blom, R. & Davenport, L. D. (2012). Searching for the core of journalism education: Program directors disagree on curriculum prioriti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7(1), 70-86. doi.org/10.1177/1077695811428885
- Bor, S. E. (2014). Teaching social media journal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future curriculum desig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Educator*, 69(3), 243-255. doi.org/10.1177/1077695814531767
- Bryman, A. (1988). *Quality and quantity in social research*. London: Macmillan.
- Carey, J. W. (2000). Some personal notes on US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1(1), 12-23. doi.org/10.1177/146488490000100103
- Choi, J., S.-C. Yoo, Jeong, S. H. (2016). *Foreign cases of journalism innovation: Research trend and strategy* (assigned report 2016-12).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Choi, M. J., Kim, S. H., Park, J.-W., & Choi, Y. J. (2013). *Journalism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research report 2013-1).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Corbin, J. M., & Strauss, A. (1990).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3-21.
- Cres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aston, L. J., & Galison, P. (2007). *Objectivity*. Brooklyn, NY: Zone Books.
- Deuze, M. (2006). Global journalism education: A conceptual approach. *Journalism Studies*, 7(1), 19-34. doi.org/10.1080/14616700500450293

- Donbach, W. (2008). Journalism as the new knowledge profession and consequences for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15(6), 661-667. doi: 10.1177/1464884913491347
- Eisner, E. (1981). One the differences between scientific and artistic approaches to qualitative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10(4), 5-9.
- Gil de Zúñiga, H., & Hinsley, A. (2013). The press versus the public: What is “good journalism?”. *Journalism Studies*, 14(6), 926-942.
- Gillmor, D. (2010). *Mediactive* . From [https://mediactive.com/wp-content/uploads/2010/12/mediactive\\_gillmor.pdf](https://mediactive.com/wp-content/uploads/2010/12/mediactive_gillmor.pdf)
- Gillmor, D. (2016). Towards a new model for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Practice*, 10(7), 815-819. DOI: 10.1080/17512786.2016.1164998
- Ha, J.-W. (2017). Research on education status of communication field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Curricula Analysis. *Journal of Social Science*, 28(2), 99-122.
- Highton, J. (1967, February). Green eyeshades vs. chisquares. *Quill*, 10-13.
- Highton, J. (1989). ‘Green eyeshade’ profs still live uncomfortably with ‘chi-aquares’; Convention reaffirms things haven't changed much. *The Journalism Educator*, 44(2), 59-61. doi.org/10.1177/107769588904400213
- Hirst, M., & Treadwell, G. (2011). Blogs bother me: Social media, journalism students and the curriculum. *Journalism Practice*, 5(4), 446-461. doi.org/10.1080/17512786.2011.555367
- Hong, K.-S. (2012, November). *The pros and cons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in broadcasting are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rding & Telecommunication. Seoul.
- Iggers, J. (2018). *Good news, bad news: Journalism ethics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UK: Routledge.
- Jae, J. I. (2010). Teach what students need in journalism education. *Kwanhun Journal*, 9, 62-29.
- Jeong, K.-H. (2012, November). *The prospect of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between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and Cable TV Compan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eoul.
- Kang, H.-D., & Yoon, H.-J. (1973, September). Current state of Korean mass communication education. *Newspaper & Broadcasting*, 81, 82-61.
- Kim, K., Park, J., Pae J. K., Lee, N. Y., & Lee, J. (2018). *Quality journalism*.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im, S. H. (2016). The journalist recruitment system is changing. *Kwanhun Journal*, 141, 75-81.

- Kim, S. H., & Oh, S. W. (2016). *Innovation of journalism education: A suggestion*. (Research report 2018-03).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Kim, W.-R., Kim, J.-Y., Kim, H.-J., Sohn, S.-H., Ahn, B.-K., Lee, M.-J., Chung, G.-G. (2006, 6). A view from the broadcasting field about the journalism.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544-557.
- Kim, Y.-H. (2012). Appearance and its characteristics of early journalism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1), 132-155.
- Kim, Y.-S. (2013). A exploratory study on win-win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ossibilities between local medias and local universities : Focused on Busan-Ilbo intern program.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57-183.
- Kim, Y. W. (2018. November). An urge for journalism research and education. *Newspaper & Broadcasting*, 28-31.
- Korea Press Foundation (2001). *Korean journalists 2017: The 13th Surve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Korea Press Foundation (2016, February). The new opportunity to teach in the university for retired journalists. *About the Media*, 3.
- Lee J.-K. (2005a, January). Forget the department-store-like journalism curriculum. *Newspaper & Broadcasting*, 105-109.
- Lee, J.-K. (2005b). Journalism education in Korea: How should it chan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5-29
- Lee, K.-S. (1973). Problem and direction and Korean journalism edu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6, 69-95.
- Lee, M.-K. (2013. August). Convergence journalism: A case of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Newspaper & Broadcasting*, 16-22.
- Lee, M. W. (2002). True news reporting as the primary condition for good news: Fact, social construction, tue news reporting, reflexivity. *Journalism & Society*, 10(3), 9-51.
- Lee, S.-K., Lee, W.-S., Joe, S.-H., Seong, H.-Y., Kim, D.-S., Hong, C.-S., Choo, E.-H., Choi, H.-T., Jeong, C.-K., Lee, S.-W., Oh, K.-J., Song, H.-S., Lee, D.-H., Park, M. Jeong, H.-S., Choi, Y.-H., Pae, J. K., Joe, J.-W., Lee, S.-N., Kwon, H.-S., Roh, H., Kim, H.-C., Kim, J.-D., Kwon, T.-H., Kang, J.-K. (2015). The professional journalists' role after retirement. *Kwanhun Journal*, 135, 193-256.
- Lindlof, T. R. & Taylor, B. C. (2002). *Qualitative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Lynch, D. (2015). Above & beyond: Looking at the future of journalism education. From <https://knightfoundation.org/reports/above-and-beyond-looking-future-journalism-education/>
- Mensing, D. (2010). Rethinking [again] the future of journalism education. *Journalism Studies*, 11(4), 511-523. DOI: 10.1080/14616701003638376
- Nam, J., & Choi., M. J. (2005). *Journalism education and journalism school in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Nam, J., & Lee, G.-H. (2017). Korean journalists perception of good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7(2), 82-128.
- Namgung, H. (2013). Challenging approach to communication science from a humanistic view: Toward negative science. *Communication Theories* 9(2), 74-126.
- Oh, S. W. (2018). *Educating citizen journalism* (research report 2018-03). Seoul: Korean Press Foundation.
- Pae, J. K. (2013, August). Journalism education in the era of convergence media. *Newspaper & Broadcasting*, 6-11.
- Park, J.-W. (2013). What kind of humanistic imagination do we need: Humanities as a new approach to communication studies, *Communication Theories* 9(3), 4-34.
- Park, J. (2013). Quality of news. in Park, J., Lee, J.-K., Kim, S.-E., Shim, S., & Nam, S. (Eds.), *The dignity of Korean journalism* (pp. 19-103). Paju: Nanam.
- Reese, S. D., & Cohen, J. (2000). Educating for journalism: The professionalism of scholarship. *Journalism Studies*, 1(2), 213-227. doi.org/10.1080/14616700050028217
- Rhee J. W., & Kim, K. (2008). Textual properties of desirable new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11, 9-44.
- Ritchie, J., Lewis, J., Nicholls, C. M., & Ormston, R. (Eds.). (2013). *Qualitative research practice: A guide for social science students and researchers*. London:Sage.
- Rosen, J. (2006, May). Jay Rosen on James Carey: An appreciation. From <https://www.poynter.org/archive/2006/jay-rosen-on-james-carey-an-appreciation/>
- Shim, S. T. (2012). Journalist, press, and journalism, *Broadcasting Journalist*, 7, 34-37.
- Song, H.-J. (2019). A way to fill a vacuum of university-level journalism education. *Kwanhun Journal*, 61(2), 11-17.
- UNESCO (2013). *Model Curricular for Journalism Education*. From

<http://www.comunesco.com/wp-content/uploads/2012/11/Model-Curricula-for-Journalism-Education.pdf>

- Van Der Wurff, R., & Schoenbach, K. (2014). Civic and citizen demands of news media and journalists: What does the audience expect from good journalis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1(3), 433-451.
- Wilhoit, C., Weaver, R. D., Beam, R., Brownlee, B., & Voakes, P. (2007). *The American Journalist in the 21st. Century*. Mahwah, New Jersey.
- Yang, J. A., Choi, S., & Kim, K. (2015). *News literacy education I: Curriculum and supporting system* (research report 2015-1).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Yang, S.-M., Kim, K. H. (2016). Forty years of communication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An analysis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curriculums of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2(2), 5-63.
- Yim, Y.-H. (2013). Institutional success story and immanent crises in the field of Korean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Theories* 9(1), 6-38.

최초 투고일 2019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8일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10일

## 부록

- 강현두·윤희중 (1973. 9). 한국에 있어서 매스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문평론. 81호, 82-61.
- 김경모·박재영·배정근·이나연·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선호·오세욱 (2017). <저널리즘 교육 혁신을 위한 제안> (연구서 2018-0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성후(2017). 언론사 경력채용 늘고 있다. <관훈저널>, 141, 75-81.
- 김용래·김진영·김현주·손석희·안병규·이민주·정군기 (2006, 6월). 방송학계와 맺은 새로운 인연 현장에서 보았던 학계, 들어와서 보는 학계.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44-557.
- 김영수 (2013). 지역언론과 지역대학간 상생적 산학협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산일보 인턴 제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157-183.
- 김영욱 (2018. 11). 저널리즘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 <신문과 방송>, 28-31.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남궁협 (2013). 인문학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새로운 모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2호, 74-126.
- 남재일·이강형 (2017). 좋은 저널리즘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자 인식 변화 추이. <언론과학연구>, 17권 2호, 82-128.
- 남재일·최민재 (2015). 한국의 언론교육과 저널리즘 스쿨.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우 (2013).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9(3), 4-34.
- 박재영 (2013). 기사의 품질. 박재영·이재경·김세은·심석태·남시욱(지). <한국 언론의 품격> (19-103쪽). 파주: 나남
- 배정근 (2013. 8). 융합미디어시대 저널리즘 교육. <신문과 방송>, 6-11.
- 백영민·유경한·이상엽 (2016). 위기의 순간인가 기회의 순간인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권 4호, 5-37.
- 송현주 (2019).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 공백, 어떻게 메울까. <관훈저널>, 61권 2호, 11-17.
- 심석태 (2012). 기자와 제도 언론, 그리고 저널리즘. <방송기자>, 7, 34-37.
- 양승목·김관호 (2015).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교육 40년 학부와 대학원의 개설교과목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2권 2호, 5-63.
- 양정애·최숙·김경보 (2015). <뉴스 리터러시 교육 I: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연구서 2015-01).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세욱 (2018). <시민 저널리즘 교육 방안> (연구서 2018-0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강수 (1973). 한국신문학 교육의 문제성과 방향. <신문학보>, 6집, 69-95.
- 이민규 (2013, 8). 미주리대 사례를 통해 본 융합 저널리즘. <신문과 방송>, 16-22.
- 이민용 (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 진실 보도-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 보도, 재귀성 (reflexivity). <언론과 사회>, 10권 3호, 9-51.
- 이선근·이완수·조성하·성한용·김도식·홍찬식·추은호·최현태·정철근·이성원·오광진·송현숙·이동현·박민·정혜승·최영해·배정근·조재우·이순녀·권혜숙·노현·김현철·김준동·권태호·강진구 (2015). 정년연장 시대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 및 활용 방안. <관훈저널>, 135, 193-256.
- 이준웅·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9-44.
- 이재경 (2005a, 1). 백화점식 교과과정의 틀을 버려라. <신문과 방송>, 105-109.
- 이재경 (2005b). 한국 저널리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언론학보>, 49권 3호, 5-29.
- 임영호 (2013). 한국 언론학의 제도적 성공담과 내재적 위기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1호, 6-38.
- 정광호 (2012, 11월). <방송학회와의 산학협력의 실제와 전망>.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연세대학교.
- 제정임 (2010).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 필요한 걸 가르치라. <관훈저널>, 9호, 62-29.
- 최만재·김성혜·박진우·최용준 (2013).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교육> (연구서 2013-1).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지향·유승철·정선호 (2016). <저널리즘 혁신 해외 연구 경향과 전략> (지정 2016-12).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하종원 (2017).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연구>, 28권 2호, 99-122.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2). 퇴직언론인 초빙교수제 운영. <언론속으로>, 3면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한국의 언론인 2017: 제 13회 언론인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홍경수 (2012, 11월). <방송계 산학협력과 취업의 허와 실>.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서울: 연세대학교.
- Cres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조홍식·정성욱·김진숙·권지성 (역) (2010).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가치, 교과목, 교수인력의 빈곤 속 한국 저널리즘 교육의 발전방안 모색:  
모델 교육과정 수립과 협업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정은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맞춰 저널리즘 교육의 목표와 영역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요청이 국내외 학계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연구는 한국 대학의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저널리즘 교육의 파피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론과 실무가 상호작용하는 저널리즘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학교와 언론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학계와 언론계 종사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의 저널리즘 교육은 가치 교육의 부재, 백화점식 교과구성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과 제공, 교육 능력을 갖춘 실무 인력 부족 등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저널리즘 전공 학생들에게는 영역 지식으로서 교유의 내용 생산 능력 강화, 실무에 결합된 윤리교육, 데이터과학과 사용자 기반 환경의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교파가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한 언론환경을 지지하는 시민 육성을 위해 언론 자유와 시민의 권리, 시민성의 함양 등이 교양 교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한국 언론의 좋은 기사 선집 정리, 저널리즘 학계와 언론 현장의 원활한 소통방안, 모범적인 커리큘럼 구성 등이 결론으로 제시되었다.

**핵심어:** 저널리즘 교육, 저널리즘 교과과정, 시민성 교육, 심층인터뷰